

# “이번엔 사랑에 미친 모습 담았죠”

“저희 노래에는 항상 당당함이 묻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앨범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있지가 사랑에 미치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를 주제로 열정적인 모습을 담았어요.”(예지)

걸그룹 있지(ITZY)가 데뷔 후 2년 7개월 만의 첫 정규앨범 ‘크레이지 인 러브’로 돌아왔다. 제목 그대로 사랑에 빠져 허우적대는 소녀의 모습을 있지만 의 방식으로 표현한 앨범이다.

있지는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지금까지는 ‘나를 위한’, ‘내’가 주체인 내용을 다뤘다면, 새 앨범은 사랑이라는 감정에 몰려서 어쩔 줄 모르

지의 모습에서 사랑스러움을 한 스펀 넣은 듯한 발랄함이 느껴진다.

정규앨범인 만큼 이 노래 외에도 ‘스 와이프’(SWIPE), ‘소 럭키’(Sooo LUCKY), ‘#트웬티’, ‘개스 미 업’(Gas Me Up), ‘러브 이즈’ 등 다채로운 장르의 16곡이 실렸다.

태연, 방탄소년단(BTS), 레드벨벳, 트와이스 등 K팝 유명 아티스트와 호흡을 맞춘 심은지를 비롯해 이어어택(earattack), 조윤경, 루드윅 린델 등 유명 작곡진이 참여했다.

이번 앨범은 있지가 전작인 미니 4집 ‘게스 후’(GUESS WHO)로 빌보드



걸그룹 있지. /JYP엔터테인먼트 제공

## 있지, 정규 1집 ‘크레이지 인 러브’ 발매 “열정 넘치는 당당함과 자신감이 우리 색깔”

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됐다”(유나)고 소개했다.

타이틀곡은 강렬한 이퀄림의 감정을 Z세대만의 화법으로 표현한 곡 ‘로코’다. 있지 데뷔곡 ‘달라달라’와 지난해 ‘워너비’를 작업한 작곡팀 별들의전쟁이 만들었다.

이 곡은 도입부와 댄스 브레이크 중간에 치고 나오는 ‘로코’라는 가사가 중독적인 노래다. ‘무대 장인’이라는 있지의 수식어에 걸맞게 퍼포먼스 역시 곡의 주제에 어울리도록 꾸몄다.

채령은 “아인 게팅 로코, 로코, 로코”라는 가사와 함께 댄스 멤버들이 다 같이 고개를 뱅뱅 돌리는 퍼포먼스가 기억에 강렬히 남을 것이라고 했다. 어지럽고 복잡한 머릿속을 표현해 주는 이른바 ‘왕관춤’이다.

무대 의상 등 스타일링에도 변화를 줬다. ‘하이틴’을 콘셉트 삼아 기존 있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 148위로 진입한 이후 발표하는 앨범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차트 성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데뷔 3년이 채 되지 않아 빌보드 메인 차트까지 입성하며 4세대 아이돌의 중심에 선 있지는 자신들의 인기 비결로 당당함과 자신감을 꼽았다.

예지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팀의 매력을 알아봐 주신 것 같다”고 했고 류진은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의견을 두려워하기보다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있지는 이번 앨범도 미국 동부 시간에 맞춰 발매하면서 글로벌 음악 시장을 향한 도약에 다시 한번 나선다. 오는 27일에는 미국 NBC 유명 토크쇼인 ‘켈리 클라크쇼’에 출연해 ‘로코’ 무대를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레인코트 킬러: 유영철을 추격하다’

넷플릭스 내달 공개

넷플릭스는 다큐멘터리 시리즈 ‘레인코트 킬러: 유영철을 추격하다’를 다음 달 22일 공개한다고 예고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2004년 한국에 사이코패스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린 희대의 연쇄살인마 유영철의 행적을 추적한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채 1년이 안 되는 기간 서울 각지의 부유층 노인과 가족, 출장 마사지사 등의 젊은 여성들까지 총 20명을 살해한 유영철은 가장 많은 피해자 수, 잔혹한 살해 수법, 연기적인 시신 훼손과 유기 방식으로 지금까지도 잔혹한 연쇄살인마로 기억되는 인물이다.

‘레인코트 킬러: 유영철을 추격하다’는 범행 수법의 재연이나 프로파일러의 회고를 중심으로 했던 기존 유영철 소재 TV 르포 프로그램과 달리 사건에 관계된

모든 이들의 인터뷰를 방대하고 촘촘하게 진행, 그들의 육성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 책임자, 관할서의 일선 형사들, 현장에 투입돼 그의 범행 현장과 피해자들의 시신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직접 접했던 감식반원, 담당 검사와 변호사, 유영철을 직접 면담했던 권일웅 프로파일러도 등장한다.

이수정·배상훈 등 프로파일러들과 유족 등 사건을 접했던 이들이 각자 다른 시점으로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며 유영철 사건의 모든 것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미국 TV 다큐멘터리 시리즈의 베테랑으로 불리는 롱 식스미스 감독이 연출을 맡아 시선과 접근방식, 내용이 기존 한국에서 제작된 유영철 관련 콘텐츠와는 다를 것으로 주목된다. /연합뉴스

## ‘사랑과 전쟁’ 카카오TV서 부활

원년 배우들 총출동...내달 14일부터 총 24부 공개

파격적인 전개와 다양한 소재로 오랜 기간 사랑받은 드라마 ‘사랑과 전쟁’이 카카오TV에서 부활한다.

제작사 두레아트플랜은 ‘뉴(NEW) 사랑과 전쟁’을 다음 달 14일 오전 9시 카카오TV에서 처음 공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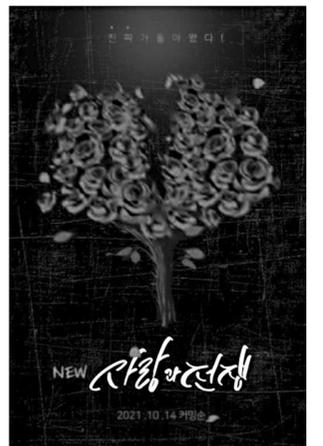
‘사랑과 전쟁’은 KBS에서 1999년 시즌 1로 시작해 2014년 시즌 2로 종영하기까지 시청률 20% 안팎을 기록하며 화제를 낳았던 인기 프로그램이다.

올해도 다양한 ‘막장극’들이 시청자들을 로부터 사랑받는 가운데 원조 격인 ‘사랑과 전쟁’도 재조명됐다. 과거 에피소드들을 짧게 편집한 유튜브 영상이 20~30대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50여 개 영상의 조회 수가 100만 뷰를 넘기도 했다.

돌아오는 ‘NEW 사랑과 전쟁’에는 시즌 1·2에서 화제를 낳은 배우들이 다시 총출동해 다시 열연할 예정이다. MBN ‘보이스 트롯’의 우승자 박세욱을 비롯한 새로운 얼굴들도 대거 참여한다. 특히 1회에서는 최영원, 김덕현, 윤기호, 장가현, 이재욱 등 ‘사랑과 전쟁’의 대표 배우들이 모두 등장한다.

소재 역시 2021년에 화두가 되는 주택 문제, 가상화폐, 학교폭력 등 다양한 이슈를 채택해 다룰 예정이다.

제작을 총괄하는 손남목 두레아트플랜 대표는 “그동안 기다려주신 시청자들의



‘뉴(NEW) 사랑과 전쟁’ 포스터. /두레아트플랜 제공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완성도 높은 웰메이드 드라마를 제작해, 20대부터 90대까지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매회 스타들의 카메오도 예정되어 있으니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NEW 사랑과 전쟁’은 매회 20분 총 24부로 제작되며, 10월 14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9시와 정오에 새로운 에피소드가 공개된다. /연합뉴스

## 블랙핑크, 유튜브 환경보호 행사 참여

내달 23일 ‘디어 어스’ 캠페인 퍼포먼스로 환경 소중함 조명



걸그룹 블랙핑크. /YG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들 블랙핑크가 세계적 명사들과 함께 다음 달 유튜브에서 환경보호를 주제로 진행되는 온라인 행사에 참여한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가 미국 현지시간 10월 23일 유튜브 온라인 행사에서 진행되는 구글 ‘디어 어스’(Dear Earth) 행사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유튜브 측 공지에 따르면 ‘디어 어스’는 글로벌 리더와 유명인사, 크리에이터 등이 출연해 연설과 음악 퍼포먼스 등으로 지구 환경의 소중함을 조명하는 행사다.

블랙핑크는 K팝 아티스트로서 유일하게 참여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블랙핑크는 이번 행사에서 특별 연설자로 나서 전 세계 팬들에게 기후변화 인식 개선을 목표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 예정이며, 화려한 퍼포먼스도 계획돼 있

다고 소속사는 밝혔다.

블랙핑크는 대규모 팬덤 ‘블링크’를 거느리며 전 세계 아티스트 가운데 가장 많은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는 등 소셜미디어 영향력도 높다.

이들은 올해 영국이 주최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홍보대사로서도 위촉돼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팬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최근에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다.

블랙핑크 제니는 지난 2월 COP26 홍보대사 위촉 당시 BBC와 인터뷰에서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느낀다.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고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 “비워내듯 채워 넣은 앨범입니다”

김사월 신보 ‘드라이브’

싱어송라이터 김사월(사진)이 새 미니 앨범 ‘드라이브’를 발표했다.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 때로는 간직하고 때로는 털어내야 할 시간을 표현한 앨범이다.

김사월은 ‘드라이브’를 “비워내듯 채워 넣은 앨범”이라고 소개하면서 “나의 시간을 직접 운전대를 잡고 주도적으로 보내겠다는 의미가 담았다”고 말했다.

외로움이라는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게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말하는 타이



틀극 ‘외로움’을 비롯해 ‘너만 큼’, ‘레슬링’, ‘드라이브’ 등 네 곡을 수록했다. 2014년 김해원과 함께 ‘비밀’로 데뷔한 김사월은 자기 고백적이고 파격적인 포크 음악으로 사랑받았으며, 제16회 한국대중음악상 2관왕에 오르기도 했다. /연합뉴스

오늘의 운세 김도완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9월 27일 (음력 8월 21일)

<p><b>子</b></p> <p>48년생 화내지 말고 참아야 한다. 60년생 적극적인 태도만이 판세를 바꿀 수 있다. 72년생 바쁘게 움직이면 근심이 사라진다. 84년생 즐거운 하루를 보낸다.</p>	<p><b>丑</b></p> <p>49년생 사랑한다면 믿어 주고 용서하라. 61년생 가족 사랑이 나라사랑이 된다. 73년생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피하라. 85년생 직장동료와의 다툼이 있겠다.</p>	<p><b>寅</b></p> <p>50년생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다. 62년생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 74년생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겠다. 86년생 멋진 이성을 보니 눈이 즐겁다.</p>	<p><b>卯</b></p> <p>51년생 돈이 인생의 전부 아니다. 63년생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75년생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87년생 주변에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p>
<p><b>辰</b></p> <p>52년생 위기는 가고 기회가 온다. 64년생 자신의 주장을 펼쳐서 원하는 바를 이룬다. 76년생 가는 곳마다 기쁜 일이 있다. 88년생 행운이 따르는 날이다.</p>	<p><b>巳</b></p> <p>41년생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53년생 작은 실수는 대범하게 용서하라. 65년생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라. 77년생 책임감을 갖고 생각하고 행동하라.</p>	<p><b>午</b></p> <p>42년생 할 말은 하고 살자. 54년생 모두가 내 편이니 살 맛 난다. 66년생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78년생 중요하지 않은 일도 일단은 열심히 하라.</p>	<p><b>未</b></p> <p>43년생 마음이 급할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 55년생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67년생 좋은 인상을 줘야 한다. 79년생 자신의 선택을 믿어라.</p>
<p><b>申</b></p> <p>44년생 오해받을 행동은 처음부터 하지 말라. 56년생 힘을 합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68년생 직장상사와 대립하지 말라. 80년생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걸라.</p>	<p><b>酉</b></p> <p>45년생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 57년생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69년생 성급한 결정은 불행을 부른다. 81년생 오 늘은 내 세상이다.</p>	<p><b>戌</b></p> <p>46년생 내 주장을 관철시킨다. 58년생 불편한 사람에게 더 잘 대해줘라. 70년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야 한다. 82년생 겸손한 자에게 행운이 있겠다.</p>	<p><b>亥</b></p> <p>47년생 문서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59년생 모임에 가면 부담스러운 일이 있겠다. 71년생 되도록 주고 말로 받는다. 83년생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보답이 있다.</p>